땅에서 올라온 짐승 666

(계13:11~18)

11.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12.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13.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14.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15.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16.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7.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8.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육백육십육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 666>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육백육십육이니라”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마지막 절에 나왔지만 우리 모두가 궁금해 하니까 제일 먼저 666부터 다루어 봅니다.
‘666’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으로 애를 많이 써요. 666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는 것을 해석해 내야 하니까.
666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를 알아야 우리가 이 둘째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대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적을 알아야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666 해석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뭐냐 하면, Gematria(게마트리아)라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 아라비아 숫자가 발견되기 전에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가 있으면 각 단어마다 알파벳 글자들이 숫자를 상징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알렙이라고 한다면 1을 말하고, 헬라어나 라틴어에서 단어 하나, 하나들을 특정 숫자를 나타낸다고 믿어서, 주로 로마 황제들의 이름을 골라서 그 이름을 나타내는 알파벳들을 숫자로 환산해서 666을 짜 맞추느라고 애들을 많이 썼습니다. 이게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해석방식이죠.
가장 많이 당첨된 사람이 네로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히틀러라고 해요.
히틀러는 게마트리아의 방식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A를 101로 봅니다. 그럼 B는 102가 되고, C는 103이 되죠. 이렇게 알파벳을 했을 때에 히틀러라는 이름의 알파벳을 합치면 666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왜 A를 101로 봅니까?
또 네로라는 것도 라틴어로 표기한 다음에 네로 카이사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바꾸어서 히브리어의 숫자로 맞춰보면 666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짜 맞추라고 666이라는 단어가 나왔을까요?
또 어떤 사람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그렇다고 보고… 아니죠.
또 아니면 6은 완전수 7에서 1이 부족한 숫자라고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7이 완전 숫자인데 1이 부족함으로 마귀적인 저주의 수라고 해석합니다.
6이라는 숫자가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6이라는 숫자 자체가 나쁜 숫자가 아니죠.
성경적으로 봐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당신이 보게 좋게 지으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6일 동안 아닙니까? 6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보면 창조성을 의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6이라는 숫자에 그렇게 애매한 누명을 뒤집어씌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666이 지니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일은, 성경 중에 어떤 구절이 이해가 불확실하고 해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불확실하고 어려울수록 기본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내용의 근원과 핵심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접근방식을 무슨 게마트리아 식으로 알파벳이 어느 숫자를 말하니까 짜 맞추려고 하는데, 하나도 정확하게 맞는 것도 없고 끼워 맞춰야 해요. 네로라는 것도 알파벳을 붙이기도하고 빼기도 해야 맞아요. 그게 맞는 겁니까? 짜 맞추는 것이지.
그러지 말고 성경내용이 나오게 된 근원과 핵심으로부터 실마리를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의 근원 핵심이 뭡니까?

한 마디로 말하면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그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나에게도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느냐?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근원이고 핵심입니다.

이게 근원이고 핵심이라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자인 사탄이 그 악랄하고 교활하고 탁월한 권세와 능력을 동원해서 방해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탄이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려는 일은, 우리 사람들이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성경의 근원, 성경의 핵심에서 보면 사탄의 정체가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 보는 거예요.
666을 해석하기 위해서 무슨 게마트리아 방식이나, 상징적으로 있지도 않은 7과 3과 4라는 것은 다 완전수라는 것이 증빙이 됩니다만, 6이 저주의 숫자라는 것은 누가 말한 겁니까? 성경 어디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뜬구름 잡듯이 출발하지 말고, 성경의 근원, 기본으로부터 출발하자는 겁니다.

사탄의 정체는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사람들이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라는 것을 알고 들어가 보면 실마리가 풀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둘째 짐승이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첫째 짐승이 행했던 모든 이적들을 다 받아서 행하게 됩니다.
이것과 연관 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신명기 13장 3절이에요.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라고 하십니다.
둘째 짐승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고 할 때의 이들은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짐승에 대해서 계시록 16장에 가면(우리가 앞으로 보겠습니다.) 붉은 용과 바다짐승인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을 이야기할 때에, 둘째 짐승을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

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기적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이 세상을 사랑해서 이 세상일을 해결할 수 있는 기적을 원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려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두셨다는 겁니다.
둘째 짐승이 그런 거짓 선지자이면서 능력을 행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가를 보시기 위해서 허락하셨다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666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가까워졌어요.

이렇게 사람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은 딱 두 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셨는데, 이 세상의 모든 인간과는 다르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또 한 사람은 타락하기 전의 아담, 그가 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결합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마치신 뒤에 안식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바로 그 안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아담에게는 사랑해야 될 아내도 없고, 염려해야 될 가족도 없고, 위해서 기도해야 될 나라도 없습니다. 아담에게 눈에 들어온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아담에게는 상대자로서 아무 대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 가고 뜻이 다 가고 힘이 다 가는 겁니다. 그분만이 대상이니까. 그게 안식일 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것은 뭐냐?
나중에 선민 이스라엘에게 안식일 규정을 주시고 십계명 속에도 4계명에 집어넣지 않으십니까? 그 안식일이 뭘 뜻하느냐?
마음속의 아내, 남편, 자식, 부모, 나라, 직장, 사업, 건강 그 어떤 것도 아무런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에게만 몰두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것이 왜 안식이냐?
왜? 평안함이고 쉼이며 샬롬이냐 하면, 하나님만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에 궁극적인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마음의 대상이 다 죽어버리거나 없어진 상태에서 하나님 한 분에게만 몰입되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에게 쏟아 부으면 나머지는 상대자로 관계할 수 있는 아무런 여력이 남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 째에 안식하셨는데, 인간은 처음에 태어나서 만난

대상이 하나님이고 그게 바로 안식일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단 선악과를 따먹지 않음으로써 다스릴 때에 나의 판단을 받아들임으로써 통치하고 다스려라, 너의 판단으로 하지 말고.”
자, 그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 안식하셨고, 인간에게는 그것이 인생의 첫째 날이 되면서 안식하고 6일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모세를 통해서 선민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창조 시에 인간에게는 안식일이 먼저이고 6일 동안 삶이 진행되는데, 나중에 선민들에게 줄 때에는 6일 동안 삶을 살고, 하루를 안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6이든 6+1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신 원래 창조계획 속에 있는 인간의 삶은 1+6이거나 6+1을 무한 반복하는 겁니다. 무한 반복하는 것을 완전수 3을 의식해서 세 번 표현하면 인생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 될 수가 있죠. 세 번 반복해서 쓰고 나면 인생 전체가 그렇게 반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1, 6+1, 6+1 이게 창조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생의 패턴입니다.
6일 일하고, 하루는 6일 동안 마음을 사로잡았던 모든 대상들에 대해 마음이 죽어버리고, 오직 유일한 하나님께만 대상으로서 몰두하는 겁니다. 이게 안식일이에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에게 몰입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몰입되는 순간에는 아내도 제3자이고, 남편도 제3자가 되고, 자식도 제3자가 되고, 나라도, 사업도 심지어는 육체의 목숨까지도 제3자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 몰입되는 것, 이게 바로 안식이에요.
이렇게 몰입해서 하나가 된 상태에서 남편 노릇하고, 아내 노릇하고, 부모 노릇, 자식 노릇, 직장인 노릇, 사회인 노릇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미국 시민으로써 살아가는 겁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과 먼저 하나가 되어 몰입되는 상태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몰입한 안식 이후의 삶에는, 내 뜻과 내 마음이 하나님께 다 몰입됐으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공략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몰입되는 이 안식의 순간을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자, 6+1이나 1+6이라고 해봅시다.
창조 때의 인간에게 첫 번째 날이 안식일이었으니까.
1+6, 1+6, 1+6 이것이 인생 전체의 삶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 몰입되는 안식의 순간인 1을 제거해 버립니다.
그러면 뭐가 남습니까?
1+6, 1+6, 1+6에서 1을 다 제거하면 666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대상인 것처럼 모든 다른 대상에 대해서는 죽어버립니다. 심지어는 내 육체에 대해서까지 마음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몰입 될 때에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안식의 순간인 1의 순간을 제거해 버린 다음의 삶이 666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냐?
욥이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하다가 하나님을 뵙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됩니까?
재산 잃고, 10명의 자식 잃고, 아내 잃고, 건강 잃고, 친구 잃고, 사회적인 명성과 체면을 다 잃고, 오직 목숨만 살아서 숨만 쉬고 있는 상태에서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서 만나게 됩니다.
욥이 자식을 잃는 고통이 어떻겠습니까? 재산을 잃고 아내가 자기를 저주하고 나가고 그런 고통을 당하니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고통 없이 마음에서 다 끊어내고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내가 죽으면서 하나님을 향해 부활합니다. 하나님만을 만납니다. 이게 바로 안식이에요.
그런데 이걸 제거해버렸어요.

이걸 제거해버렸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어떻게 삽니까?
사업이라고 하면, 불철주야 6일 동안 사업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사업에 대해서 죽어서 하나님께 몰입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몰입되면 하나님의 판단과 뜻과 힘이 사업에 반영이 될 텐데, 이것을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제거해버리니까 6일 동안 사업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그 다음에 또 6일 동안 또 사업이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도 1이 제거된 상태에서 6일 동안 사업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지옥을 사는 거예요. 중단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쉼도 중단도 멈춤도 없습니다. 이 세상일에 대해서 자식이면 자식, 사업이면 사업, 건강이면 건강 끝없이 세상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거운 짐 진 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저주 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완벽하게 이루기 위해서 이 거짓 선지자인 둘째 짐승이 해낸 것이 뭐냐?

속이는 것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했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 전문가 아니었습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땅 전문가예요.
땅 전문가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둘째 짐승을 특별히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바다인 이 인간세상을 땅이라고 속이는 겁니다.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무슨 형상이 있었겠습니까? 언어가 있었겠습니까?
창세기를 쓴 모세가 그 당시 상황을 인간의 언어로 묘사하는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는 겁니다. 이 때 하나님의 신이 바람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데 어디에 하십니까?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수면 위에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수면위에 떠 있으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기쁨 속에서 살아가라고.

그런데 사탄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수면 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얼마나 좋으냐? 그 좋은 것들을 판단해서 마음 안으로 끌어들이면 진짜 기쁨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그러다보니까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가라앉고 보니 바다 속에서 삶의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생기는 거예요.
그 혼돈과 흑암과 공허의 특징이 뭡니까?
걱정, 근심, 불평, 불만, 원망, 짜증, 미움, 시기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바다짐승이 원하는 것이 수면 위에 떠있는 하나님과의 결별이었어요.
그래서 가능한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있는 바다 속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빠지게 하는 것이 바다짐승인데, 이 두 번째 짐승이 바다짐승을 경배하라고 합니다. 바다짐승의 의도를 더 완벽하고 충실하게 이루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666의 이름을 가진 이 둘째 짐승이 한 일이 무엇이냐?
이 혼돈과 흑암과 공허의 바다 속을 땅이라고 거짓말로 속인 것입니다. 그게 인류 전체에 보편적으로 먹혀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바다 속을 바다로 보지 않고 땅이라고 보도록 유혹하고 거짓말로 속인 것이 무엇이 다

르다는 이야기인가? 라는 의문을 가질 거예요.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만약에 돈이나 자식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문제의 해결은 수직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괴로움과 두려움을 주고 있는 자식 문제나 돈 문제에 대해서 내가 죽는 겁니다. 바다 속에 빠졌을 때 이게 바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죽으면 뜹니다. 수직선상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에 가까울수록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수면 위에 완전히 설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바람이 들어가면서 이제 돈 문제, 자식 문제도 하나님의 뜻이 적용이 되고 하나님의 힘과 마음이 적용이 됩니다. 수직선상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리 깊이 가라앉아도 그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죽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둘째 짐승이 등장하는 겁니다.
불안한데 와서 사탄의 지배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땅이라고 속였어요.

땅이라고 속여서 나타나는 일이 뭡니까?
돈 문제, 자식 문제가 생기면 이전에는 바다라고 생각해서 위로 올라가면 되는데, 위로 올라가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물에 가라앉을 때에 힘을 쭉 빼면 뜨는 것처럼.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맡긴다, 내려놓는다.”라는 건 전혀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돈 문제, 자식 문제 같은 것을 맡긴다.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내가 주체가 되어서 그 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고, 내려놓는 것도 내가 주체가 되어서 그 문제를 내려놓는데 이때, 문제는 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대로 보존된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자식을 붙잡아서 행복하려고 했던 내 속의 기질이 문제인 거예요. 돈을 통해서 행복하려고 했던 내 속의 기질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끝이 나는 겁니다.
그걸 내려놓는다든지 맡긴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죽어서 올라가기만 하면 해결이 되는데, 바다를 땅이라고 속여서 모든 사람이 땅에서 내가 돈 문제를 갖고 있고, 자식 문제에 대해 고민이 있을 때에 어떻게 바뀌느냐?
지금 현재 내게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게 한다는 겁니다. “언젠가 내일이 오면 해결이 되겠지. 내일 모레쯤에는 해결이 되겠지.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지.”라고 하면서 자꾸 앞을 내다보도록 속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삶이 수평선을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바다 속이 땅인 줄 알고 땅에서 문제를 당하게 되면

“내일이면 해결 되겠지, 내일이면 좋아지겠지, 내일이면 더 나아질 거야.”
이렇게 수평선상으로 움직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수면과 바다 속에서 땅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루어지는 삶의 동선이 평행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수면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수면 위에 하나님이 계신데, 바다 속에서 인간의 삶이 땅으로 착각해서, 내일, 내일 내일을 향해서 평행선을 이루면서 가다보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못 만나는 겁니다.
차라리 내일이 없다면, 내일이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에서 들리고 있다면, 위를 보고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을 만나니까 거기에 해결이 있는 것이고, 세상이 다 내가 죽음으로써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 되어, 내가 올라가고 보니까 내 앞에 다시 있는 거예요.
그 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다시 적용되면 되는 것인데.
이 사탄이 이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원의 사건을 “내일이면 된다. 내일이면 해결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땅이라고 속임으로써 끝없이 수면과 평행선을 가게 만듭니다. 인생의 진행 방향이 평행선을 이루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만날 수 없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일반인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어서, 그렇게 사람들이 꿈과 비전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까지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12장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사건을 통해 미가엘 천사에게 붉은 용이 전쟁에서 지게 되니까 바닷가에 서서 바다짐승을 불러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여자의 자손들인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의 권속으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안으로 바다짐승의 영향력과 바다짐승의 이 의도를 완성 시키려는 666 둘째 짐승의 영향력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으로 들어온 666의 영향력이 어떻게 발휘되고 있느냐?
돈 문제로 교회에 오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돈 문제 해결된다고 말 해주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안에도 6이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 동안 6이 지속됐다가 교회에 오면 안식의 1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일으켰던 돈에 대해서 죽게 만들어줘야 하고 그래서 안식을 경험하게 해줘야 하는데, 교회에서도 6이 지속되는 겁니다.
6으로 살았어요, 완전히 세상에 묶여서 살았어요. 그래서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세상 문제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6이 계속 됩니다. 나가서도 6이 계속 됩니다. 666이 계속 되는 거예요. 영원히 수

면 위에 계신 하나님과는 평행선을 그으면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는 잘 될 것이다. 5년 뒤, 10년 뒤에는 잘 될 것이다. 미래의 비전과 꿈을 가져라.”
그리고 목사님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교인이 많이 오겠지. 언젠가는 예배당을 지을 날이 오겠지.”
평행선을 긋는 겁니다. 훌륭한 예배당이 지금 내게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계시잖아요. 바로 위에. 지금 여기서 바로 위로 올라가기만 하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계시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미래에 둡니다. 예배당 지을 날을, 교인이 늘어날 날을.
교인은 없어도 지금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에서 다른 목사님보다 못할 수는 있어요. 더 작은 예배당일 수 있고, 더 작은 숫자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만족하는 일에야 만 명 되는 교회의 담임목사님보다, 10명 교인을 목회한다고 해서 내가 덜 기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목회하는 예배당이 하꼬방 같다고 해서 2,000억짜리 예배당을 갖고 있는 목사님보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이 적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배당이 적으면 하나님도 나에게 당신을 적게 주십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666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제까지 우리가 666을 몰라서 이렇게 이해하질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던 때처럼 몰라서 그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전해요.
“돈 문제 있으면 그 해결 방법은 돈 문제를 내려놓거나, 돈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쥐고 있는 당신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어요. 부활하면 당신은 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고 세상에 대해 등을 돌리게 될 겁니다. 올라가세요. 하나님을 만나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분명히 가르쳐줬어요. 그런데도 못 놔요. 이 세상을 놓지를 못해요.
왜 못 놓습니까? 666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666의 표를 받은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걸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미국에서 상행위를 하기 위해 필요한 베리칩을 신체에 새겨 넣는다 어쩐다 하니까, 그게 666 아니냐고 하는데 그건 666이 절대 아닙니다.

666의 표는 실제로 신체상에 새겨지는 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사만 사천 명, 하나님의 백성이 인침을 받을 때에 이마에 인침을 받는다고 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 중에 사도 바울이나 요한이나 그 누구도 이마에 실제 표를 받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에 표를 받는 거예요. 666도 마음에 표를 받는 겁니다.
그럼 마음에 666 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입니다.
이것이 어떤 거짓말이냐?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먹을 것과 입을 것, 너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약속을 사탄이 깰 수가 없습니다. 카타콤에서도 먹고 입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두려움을 자아내게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전념할 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버릴 때에, 자식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버릴 때에, 내가 관여하고 붙잡고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이게 될 것인가?" "어림도 없지."
이 공포심이 바로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정책을 발표한 거짓 선지자의 의도입니다.
하나님 잘 믿고 날마다 수면 위에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에 우리가 굶어죽지 않아요.
만약에 굶어죽는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그만 살고 영원한 나라에서 복락을 누리자고 데려가시는 것이지, 사탄 때문에 망하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망할 것을 왜 두려워합니까?
그것부터가 사탄의 궤계에 속은 것이고, 거짓말이라니까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하셨어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북 왕국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인 엘리야가 매매를 못해도 하나님께서 먹여 살렸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생각하게 하느냐?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매매행위나 경제 활동을 부지런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막힐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된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필요한 만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과 입을 옷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어차피 우리는 매매를 못할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는 돈 벌려고 사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났으면 내가 얻을 것을 다 얻은 겁니다.

뭘 더 얻겠다는 겁니까? 그 다음에는 매매를 하든, 못 하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먹고 살 것은 광야에서도 먹이셨고,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고, 우리 먹고 살 것은 해주실 것입니다. 먹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 벌려고 삽니까? 언제부터 부자 되려고 살았습니까? 얼마를 벌겠다고? 또 그 까짓것 벌면 뭐한다고? 명품 백 하나 더 들고 다니면 뭐가 달라집니까? 이게 다 두려움을 주는 사탄의 거짓 정책이라는 거예요.

666이 뭡니까?
하나님께 몰입하는 마음이 없게 만든 거예요.
어떻게 몰입하는 마음을 없게 만듭니까? 두려움을 주어서.
"내가 이 세상을 쥐지 않고 액션을 취하고 애를 쓰지 않으면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라는 두려움을 줘요.
그런데 이 말에 타당성을 불어넣기 위해서 하는 일이, 열심히 하면 저렇게 된다고 하면서 성공한 몇몇 사람들을 내세웁니다. 이게 바로 본문에 나오는 "우상"이에요.
15절에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 우상이 바로 인간 세상, 바다 속 세상에서의 스타들입니다.
사탄이 돈을 많이 벌게 합니다. 인기를 얻게 합니다. 성공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자기 계발서를 씁니다.
"내가 열심히 했더니, 내가 미래를 향해서 비전을 갖고 꿈을 가졌더니 오늘의 이 자리에 오게 됐다."라고 생기를 넣어서 말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그게 지금 사탄에 의해서 된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스타를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건희 씨, 이재용 씨, 빌게이츠… 다 우상화 되는 겁니다.
"언젠가 나도 저렇게 돼야지. 저렇게까지는 못 되더라도 저 방향으로 나가야지."라고 우상이 되는 거예요.
미래, 땅 위에서 앞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수면 위에 계시지 말고 내려와서 이 땅에서 나를 빌게이츠처럼 만들어 주세요. 나를 누구처럼 만들어 주세요. 무엇 무엇으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이렇게 해서 우상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완벽하게 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못 만나도록, 수면과 바다 속에서 땅이라는 생각을 갖게 해서 평행선을 가게 만들면서, 끊임없이 단 한 순간도 땅에 대해서 죽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땅에 꽁꽁 묶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666이에요.

분명히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십자가를 전했는데도 도저히 내가 세상에 대해서 마음을 붙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세상을 케어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붙잡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마치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뒤돌아보다 소금기둥이 된 것처럼, 그렇게 뒤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마음이 근질근질하고 계속해서 세상일을 내 마음에 붙잡고 있다면, 그게 바로 마음에 666표를 받은 증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애를 쓰기 시작하고, 죽고 수면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 이들이 바로 이마에 인침 받은 십사만 사천 명이라는 거예요.

666이 뭡니까?
안식을 제거한 이 세상의 일에 완전히 마음이 묶여서, 6일 동안 일했으면 쉬어야 하는데, 또 6일 동안 일하고…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안식이 빠진 삶.
안식이 뭡니까?
안식은 십자가를 통해서 매 순간 주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안식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내 마음을 뺏어가려는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기만하면 수면 위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바람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신바람이 들어 온 상태에서 가라앉지 않고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기쁘고 이 단순하고 이 멋진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666이에요.

이상합니다. 아무리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해도 절대로 못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한 번 보세요. 지금 교회가 어떻습니까?
사순절 날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나면 가끔 맥락에 걸려들 때에나 십자가에서 구원 받았다는 이야기 한번 하고, 이 세상 삶에 대한 영역은 완전히 666 짐승에게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목사님이나 신학교에서조차도 666이라는 것을 배워본 적이 없어서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전하세요. 전해서 진짜 마음의 666표를 받은 자와 아직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선택받은 사람들을 가려내야 됩니다.
우리 책임 아니겠습니까? 알고 있는 자들의 책임이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루 종일 잠 잘 때조차도 세상일이 묶여있습니까?
빨리 십자가를 붙잡고 수면 위로 올라가세요.
“내일이면 나아질 것이다. 내일이면 나아지겠지”
내일을 바라보는 이 마음이 둘째 짐승 666, 사탄 거짓 선지자에게 설득되었기 때문이고, 아니면 목사님의 설득이 내게 옮겨졌기 때문이므로 이제 차단해야 합니다.
해결은 지금 위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됐어요.

지금 사채를 끌어들여서 사채업자에게 쫓기고 있습니까?
그렇더라도 해결은 도망간 그 자리에서 하늘을 보세요. 사채업자에게 쫓기는 그 현실에 대해서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기를 쓰세요. 사채업자에게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사채업자에게 쫓기는 이 상황에 대해서 마음이 죽기위해 기를 쓰세요. 마치 그런 일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마음이 수면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마음에 샬롬과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는 반드시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십니다.
감옥에 가게 된다면 감옥에 가는 것이 제일 좋기 때문에 가게 될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가족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실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사탄은 두려움을 갖게 만들고 걱정하게 함으로 틀어막는 겁니다.
“내가 감옥가면 어떻게 하나? 가족들은 어떻게 하나?”
이게 다 매매하지 못하게 한다는 정책 속에 숨어있는 사탄의 숨은 의도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것입니다.
666의 짐승을 이겨내고, 그 영향력과 미혹을 이겨내고 서서히 교회 안에서 666의 모든 영향력 아래에 있는 666의 지체들을 다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소식을 마음에 품은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바다 속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세계를 땅이라 속이면서 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못 만나도록, 영원히 수면과 평행선을 긋게 하는 이 666 짐승의 표가 아직 내게 새겨지지 않고 있을 때에,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인침을 받게 해주심으로 수면 위로 올라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